

**56**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

성별	여성	나이	48세	직종	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종사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

**1**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14년부터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의 검수,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. 2015년 4월부터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2015년 □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, 이후 시행한 후각기능 검사상 후각 인지 기능이 거의 없는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.

**2** 작업환경

○○○은 최근 근무한 □사업장에서 5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을 조립·검사하는 작업을 하였고, □산업에서 9개월 동안 자동차 램프를 조립하였다. 이후 2007년 4월부터 약 6년 10개월간 □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인 펌퍼 사출물을 가공작업하였는데 사출물을 칼로 다듬고 볼트로 조립하였으며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였다. 이때까지 근무한 3개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이 없었다.

2014년 □사업장 공장에 입사한 후 프레스 성형된 부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하였다. 이 때 상표 표면에 라벨 부착시 접착제를 사용하였고 제품에 방청유를 분무하였다.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. 포장공정에서는 프레스로 가공된 금속재질의 자동차 부품을 불량 검사한 후 제품 상자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다.

**3**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질환

**4**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(유기용제)

## 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4년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의 검수,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. 2015년부터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. □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었으며, 2015년에 시행한 KVSS II 검사에서 후각소실로 판단하였고, 이후 기질적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검사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.

## 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후각 소실이 발생하였고, 작업장에서 사용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 조사 결과, 스프레이 도포 작업은 매우 짧은 시간에 노출이 발생하며, 그 도포 작업 또한 하루 5회 정도로, 총 노출 시간이 5분 이내로 추정되며, 개인 시료에서 대부분 유기화합물은 불검출이었다. 지역시료에서도 노출 기준의 10% 수준으로, 높지 않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. 따라서 근로자 ○○○의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끝.